

# 장흥지역 아파트 공급 과잉 집값 파동 우려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300여가구...신축 물량 넘쳐나 지난해 연말부터 집값 15% 떨어졌지만 매매도 안돼

장흥지역 공동주택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으로 집값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장흥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300여 가구가 신축 허가를 받았다. 신축물량이 넘쳐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20년 이상 노후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내놓으면서 관련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물 물량이 많다 보니 가격 하락은 물론 매매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2~3년 전만 해도 매물을 내놓으면 1주일도 안 돼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3개월이 넘어도 거래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매매가격도 기존 대비 15%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쌀값 하락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고기를 비롯한 농수산물 판로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동안 증가추세를 보이던 귀농·귀촌인구마저도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 영세상권 역시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과 비싼 임대료로 탓에 텅 비어있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부동산업계 등은 “집값 하락세와 빈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장흥읍의 침체에 따른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면서 “장흥군이 시가지지를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주택을 수요와 공급에 맞는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행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흥지역의 지난 2012년 이후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가) 허가 현황은 2012년 236가구, 2013년 94가구, 2014년 88가구, 2015년 152가구, 2016년 708가구 등 총 1278가구로 집계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장흥군 48억 들인 노인복지관 개관

장흥군 노인복지관이 개관했다. 장흥군은 “최근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1년간의 건립공사를 마치고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국비 3억7800만원, 도비 2억 8000만원, 군비 42억원 등 총 48억6300만원이 투입된 부지면적 2631㎡, 연면적 1846㎡,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노인회사무실, 장기바둑교실, 휴게실, 식당 등이 배치됐으며, 2층은 컴퓨터실과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당구장, 탁구장, 대강당, 옥상에는 미니 게이트볼장이 설치됐다. 장흥군은 노인인구가 31%를 넘는 초고

령화 지역으로, 이번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라 노년인구의 복지확대가 군 전체의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 노년층의 오랜 염원 속에 노인복지관이 새로 건립된 만큼, 신축 노인복지관을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00세 인생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실시하고,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안락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만큼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젊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겨울 하우스 딸기 수확 장진군 강진읍 춘천리의 한 하우스에서 지난 2015년 귀농해 딸기농사를 짓기 시작한 장현씨 부부가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강진지역은 전체 52ha 연간 1570톤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딸기 재배 전체 161농가 중 55농가는 귀농 농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 150억 목표...장흥군인재장학회 모금 박차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성)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인재육성장학회 150억원 확보를 목표로 모금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13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인재육성장학회는 150억원 기금 확보를 목표로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각지의 출향인과 출향기업인, 그리고 군민, 독지가,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출향향우와 출향기업인의 정기 모임 등 각종 행사 시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소액 기탁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는 1인 1계좌(1계좌당 5000원 이상)갖기 운동도 시작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은행간의 예치경쟁을 통한 정기예탁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고, 은행들의 지역사회 후원사업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또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청과 읍면사무소, 토요시장, 보건소, 군민회관 등에 기탁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올해 장학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1억8800만원, 성적우수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 운영 지원 7200만원 등 8종의 사업으로 7억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강진산 전통장류 설 선물 인기

###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만들어...대표 특산물 자리

설을 맞아 강진군에서 전통방식으로 만든 전통장류가 명절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군동면 용소리에 있는 신기마을에서 지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통메주와 장류의 맛과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강진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통장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적인 생산 유통을 위해 2005년 강진전통된장장류농조합인을 설립해 현대식 공장과 900여개의 항아리가 놓인 장독대를 마련했다. 특히 신기마을은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제조방법은 전통기법을 고수하는 것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된장 특화단지 지정됐다. 지난 2015년에는 장류 제조의



원조인 백정자 여사가 전통장류인 ‘증장’제조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는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65호로 지정됐다. 강진 전통장류 구입문의는 강진전통된장장류농조합법인(061-434-1616) 및 강진군 초록민원 직거래지원센터(www.gangjin.center, 061-433-8844)로 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 교통·재해·쓰레기...7개 분야 상황실 운영

영암군 설연휴 종합대책 마련

영암군은 “설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영암군은 설연휴인 27일부터 30일까지 종합대책 총괄반을 비롯한 교통·연료·불기안정,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 상하수도, 쓰레기, 보건진료, AI·구제역 방역 등 7개 분야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교통 및 안전대책으로 대중교통 운행관련 시설·장비 사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불편신고 처리 및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

로 했다. 군은 또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4개소, 약국 22개소를 당직(반)을 지정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군 홈페이지 및 종합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은 쓰레기 중점 관리대책을 위해 명절 이전과 이후 민관 합동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가점소독시설 2개소 및 이동통제초소 3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 강진읍, 읍면 현장행정 평가 전남도 1위

강진군은 “지난 19일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6년 시군 읍면 현장행정 평가에서 강진읍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 지역 내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음 실시한 ‘2016년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 분야, 32개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강진읍은 이번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1000만원의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받았다. 상사업비 1000만원은

강진읍 관내 문화재 및 관광시설물의 보수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진읍은 2017년 새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읍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존 탐장지리를 민원인과 가깝게 재배치하는 등 현장 접근 발로 뛰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강진읍은 지난해 군정홍보실적 1위와 상반기 읍면시책평수행평가, 조기집행, 체납세징수율 97% 등 각종 성과를 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 3년안에 승부 납니다!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